

1 개요

널갯당 오일본향 본풀이는 한경면 판포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아내가 임신 중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것을 이유로 부부가 살림을 갈라 바람 위와 아래 따로 좌정하고 여신은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된다.

2 내용

정씨하르방과 짐씨할망이 부부가 되었다. 하르방이 출타한 틈에 임신한 할망이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지자 돼지털로 콧구멍을 찔렸다. 집으로 돌아온 하르방이 부정하다며 살림을 갈랐다. 하르방은 바람 위, 할망은 바람 아래 좌정하였다. 할망은 돼지고기를 받았다.

3 특징

널개는 한경면 판포리이다. 판포본향당은 오일본향 정씨하르방, 축일본향 짐씨할망을 모시는 곳이다. 오일본향, 축일본향으로 각기 명명된 것으로 보아 인근 여러 마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본풀이를 보면 인근 여러 마을과는 다른 사정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부부신이 돼지고기 금기 파기를 이유로 별거를 하였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오일본향이 본향신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본풀이 내용만으로 이 마을 당시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다. 남녀신이 살림을 갈랐으며 바람 위와 아래로 따로 좌정하였다. 이는 본래 남녀신을 모시는 당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다. 현재 남녀신을 한 곳에서 모시고 있으니, 이는 언제인가 사람들이 편의를 좋아 당을 하나로 합쳤음을 의미한다. 다만 제물을 달리하는 신을 한 데 모시게 되자 제일을 달리하여 의례를 별도로 갖추는 방식만은 유지하였다.

4 핵심어

널개, 판포리, 축일본향, 정씨하르방, 짐씨할망, 돼지털, 바람, 돼지고기

5 원전 서지사항

널갯당 오일본향(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